



중국 최초 보험거래소, 상하이에 설립 예정

왕양비 연구원

■ 9월 15일 상하이 특별시 금융부 부장은 「상하이 보험거래소 설립 제안서」가 이미 중국 국가 국무원에 제출되었다고 밝혔으며, 동 보험거래소의 설립안이 심사를 통과할 경우 상하이에서 최초의 중국 보험거래소가 설립되는 것임.

- 보험거래소는 부모위험의 중개와 인수를 위한 중앙거래소를 가리키는데, 세계적으로 미국의 뉴욕 보험거래소(NYIE, 1980년 설립 후 1987년 폐쇄)가 있었으며, 현재 영국의 로이즈(Lloyd's, 2007년 중국에서 자회사 설립) 등이 있음.
- 상하이 복단대학교(复旦大学) 보험연구원장 겸 중국보험거래소 설립 연구팀장인 서문호 교수는 보험거래 장소 제공, 보험거래소 규정 제정, 관련 업무 감독, 거래 정보 관리와 제공 등이 중국보험거래소의 주요 역할이라 지적함.
- 구체적으로는 상하이 보험거래소에서 증권화된 보험자산의 매매와 관련 파생상품 발행, 생명보험 정산거래, 임의 재보험, 보험 중개인의 보험구입 등 4가지 종류의 업무가 이루어질 계획이며, 동 거래소의 설립으로 보험시장 관련 정보 공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
- 상하이 외 신전 특별시와 쓰촨성 성도 청두시도 보험거래소 설립에 관한 계획을 공개한 바 있으나,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도로 설립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인 상하이에 비해 타 경쟁도시들은 아직까지 감독당국의 공식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.
- 이외에 베이징 특별시도 2009년에 보험거래소의 개설을 중국 국가 국무원에 신청하였으나 준비부족으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며, 베이징시 정부의 지원 하에 동 거래소가 베이징보험거래소 주식회사로 개명된 후 현재 소비자대상으로 각종 보험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보험 슈퍼마켓의 역할을 수행함.

■ 상하이에 중국 최초의 보험거래소가 설립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, 아직까지 미비점이 많아 동 보험거래소의 설립을 위해서는 각 경쟁도시들의 장기적인 협력이 필요함.

- 보도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, 베이징, 선전, 청두 등 4개 경쟁도시는 보험거래소의 장래에 대해 서로 다른 무게중심의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으며, 이러한 상이한 발전전략들은 보험거래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됨.
 - 상하이 보험거래소의 운영계획서에 따르면 동 시장은 장내거래만이 허용될 예정이며, 설립 초기 재보험업무를 주요 업무로 한 후 파생상품시장도 구축할 계획임.
 - 베이징보험거래소 주식회사는 현재 업무를 기반으로 생명보험의 정산거래(Life Settlements) 업무에 치중하는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음.
 - 청두는 대재해보험채권 및 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주요 업무로 할 계획이며, 이에 보험거래소 설립 주관기관인 서남연합거래소(Southwest United Equity Exchange Co. Ltd)는 선진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기 위해 뉴욕대재해보험거래시장(New York CATEX)과 기술지원, 인적교육 등에 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 - 한편, 선전은 보험증권의 자유로운 유통기반을 토대로 선전보험거래소를 보험증권 거래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며, 이외에도 재보험 및 보험금융상품 시장의 구축도 계획하고 있음.

(상하이증권보 9/16, 경제참고보 8/26 등)